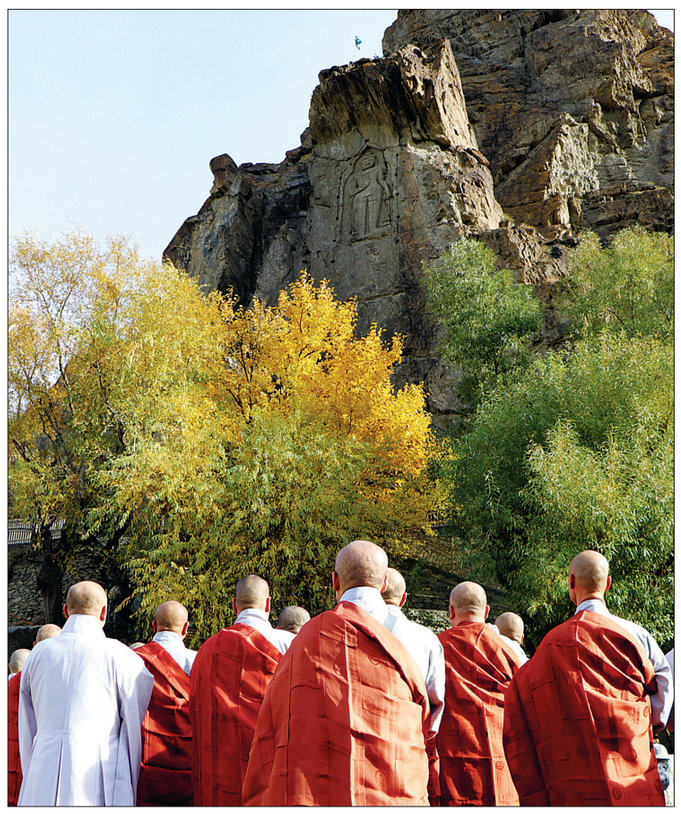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17일 파키스탄 방문 첫 일정으로 라호르박물관을 방문 · 관람했다. 이곳에서 대표단은 간다라 미술의 결정체인 싯다르타 고행상을 참배하고 순례 입재식을 봉행했다.



길기트발티스탄주로 이동한 조계종 대표단은 8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 '카르가(Kargah) 붓다'를 참배했다.

"아! 부처님"… 고행상 앞 韓스님들 '환희'

조계종 대표단, 파키스탄 라호르 · 길기트 불교유적 순례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간다라갤러리에 한국 스님들의 감탄사가 울려 퍼졌다. "아… 부처님!" 고행상 앞에 선 스님들은 벅차오르는 심정을 외마디로 대신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은 자리. 선종의 '염화미소'를 빌려 표현하자면, 고행상 싯다르타가 2500여 년이 지나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용맹정진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느낌이다.

파키스탄 정부 초청을 받아 라호르에 도착한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17일 가장 먼저 라호르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에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거듭나기 전, 6년간의 고행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고행상'이 소장돼 있다.

고행상은 간다라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불교사와 불교미술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보로 여겨진다. 특히 2세기경 쿠샨왕조의 전성기인 카니슈카왕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행상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융합된, 사실주의에 입각한 불상이어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고행상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현존하는 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이자 최초의 불상으로 여겨진다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훼손도 없이 오롯하게 보존되고 있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간다라미술이 발달하기 전, 부처님을 향한 대중의 신심은 인간 형상의 불상이 아닌 족적(足跡)과 탑 등으로 표현됐다. 우상숭배를 우려한 부처님이 열반하면서 자신을 형상화한 조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한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대중의 열망은 간다라지역에서 헬레니즘이 만나며 인간 형상의 불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행상은 간다라 지역에서 주로 조성됐으며, 인도의 전통이 짙은 중인도나 남인도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행상 앞에 선 조계종 대표단.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싯다르타의 6년 고행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루에 깨 한 톨을 먹어가며 깨달음을 얻고자 온갖 고통을 참아낸 그 모습이다. 뱃가죽은 등가죽에 달라붙어 모든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쇄골은 깊이 파여 목을 지탱하는 척추뼈까지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수행자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비친다. 비록 먹지 못해 두 눈두덩이는 움푹 들어가 해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안광이 빛나는 듯하다. 크진 않지만 굳게 닫은 입술이 깨달음을 향한 처절한 사투를 대변한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고행상. 싯다르타는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으며 진리를 탐구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뒤로하고, 스님들은 가사 장삼을 수한 채 파키스탄 순례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축원 등 길지 않게 진행됐다. 입재식을 마치고도 스님들은 고행상 앞을 쉬이 떠나지 못했다. 분명 간다라갤러리에는 고행상 외에도 수많은 간다라 불상이 있었지만 두 눈은 오로지 고행상으로 향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는 스님, 두 눈을 꼭 감고 합장한 채 초발심을 되새기는 스님까지. 라호르박물관에 수행자들의 불심(佛心)이 가득 찼다.



길기트 마을 원로와 조계종 스님들의 만남. 스님들이 쓴 것은 '도비'라는 전통모자다.

라호르박물관 고행상서 입재
조계종 스님들 감탄사 연발
'피골상접'한 간다라 부처님
2500년 뒤 찾아온 제자에게
용맹정진 표상 보여주는 듯

길기트서 '카르가 붓다' 참배
8C경 티베트 왕국 조성 추정
"韓 · 파키스탄 교류 물꼬 트길"



라호르박물관 간다라갤러리의 모습. 이곳은 싯다르타 고행상이 전시돼 있어 유명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00년대 초 조계사 순례단과 파키스탄에 한 번 왔었다. 당시에도 고행상을 보고 감명이 깊었다"며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니 새삼 경이롭고 감탄스럽다. 간다라미술은 헬레니즘과 불교가 만난 고귀한 문화유산"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불자들에게 소중한 라호르박물관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다. 바로 유물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간다라갤러리에는 수백여 점의 불교조각이 전시돼 있지만 자세한 설명이 붙은 유물은 소수에 불과하다. 유물이 대략 몇 세기경에 조성됐는지, 크기는 얼마인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적히지 않아 불교유물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문화권을 실감케 했다.

라호르박물관 탐방을 마친 대표단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 비행기를 타고 북부 길기트발티스탄주로 건너갔다. 이곳에는 8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 '카르가(Kargah) 붓다'가 있다. 카르가 붓다는 길기트 마을에서 서쪽으로 9.7㎞ 떨어진 2개의 계곡 '카르가'와 '수코가'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이 마애불은 1920년대 영국의 정치학자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길기트에는 카르가 붓다 외에도 멀베라닥 지역에서 비슷한 형상의 마애불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넓적한 얼굴과 귀, 큰 입, 투박한 신체 표현 등으로 볼 때 7~9세기 티베트왕국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애불 주위에는 불상의 보존을 위해 조성한 닫집 흔적이 남아있다.

한동안 마애불을 바라본 원행 스님은 "마라난타 스님을 따라 동양으로 불교 교류가 이어지면서 내세불인 미륵불을 표현한 것 같다"며 "이를 통해 대승불교가 점차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은 라호르박물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카르가 붓다 앞에서도 불교 의례를 올렸다.

우스만 아마드 길기트발티스탄주 관계자는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원래 마애불 주변은 정리되지 않아 사람들의 출입이 불편했다. 하지만 최근 주변을 정비하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였다"며 "향후 한국인들이 이곳에 순례를 온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길기트 지역언론은 이날 대표단의 마애불 참배에 맞춰 동방에서 온 수행자들의 행적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어 스님들을 인터뷰하며 마애불이 갖는 의미와 한국-파키스탄의 교류 가능성 등을 물었다.

이에 원행 스님은 "한국과 파키스탄의 외교가 공고해지고, 불교 교류를 통해 양국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길기트발티스탄주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만년설산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여행지가 될 것 같다"며 "종교적으로도 마애불이 있어 불자들에게 소중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